

出版振興과 圖書館 擴充方案

崔 根 滿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1. 概 要

한 나라의 文化의 尺度를 알아보려하는 그 나라의 圖書館數와 年間 出版種類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文化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國家인가를 가름하고 있는 것이 통에라 하겠다. 이와 같이 重要한 社會의 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이 두 分野가 아직 不進한 상태에 있다. 出版業者와 書店은 不況으로 허덕이고 도서관은 技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學生과 一般市民에게 입을 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外國의 새로운 科學技術을 비롯하여 人文社會 등 모든 文獻的 情報蒐集이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이러한 期間이 繼續될수록 國民敎養의 底下는 勿論 敎育의 充實을 기하기 어려우며 新製品開發에 있어서의 國際 競爭에 必敵할 만큼 Cost 절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開發計劃과 併行하여 이 두 分野의 開發에 우리 모두가 關心을 기우려야 하겠다. 그렇게 하므로써 各 分野에 걸쳐 正確하고 科學的인 研究가 繼續되고 國民들이 自由스럽고 부담없이 책을 얻어 입을 수 있을 때 보다 앞찬 近代化가 明實 共히 達成되리라 믿어 다음 몇가지의 根本的인 問題點을 解決함으로써 出版事業이 振興되고 圖書館 開發과 工夫하는 學園 分圍氣가 造成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2. 圖書館 擴充과 合理的인 運營

圖書館數를 늘이고 圖書購入費의 確保를 圖謀해 줌으로써 出版事業振興이 이루어 질 것이다. 圖書販賣의 市場은 一般 國民에 앞서 圖書館이라 함은 이미 外國에서 經驗한 바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出版된 冊의 一定量을 圖書館에서 購入하여 出版業이 企業性을 維持할 수 있다면 業者들은 서로 다투어 良書 出版에 힘을 기우리게 될 것이며 大學敎授나 研究家, 技術者는 原稿를 쓰기만 하면 出版이 可能하고 또 經濟的으로 原稿料나 印稅의 收入을 가져오므로 原稿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原稿를 쓰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文獻을 調査하고 研究하여야 하기 때문에 繼續 公부를 하게 되고 敎授들이 原稿만 執筆하여도 家庭經濟가 潤택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이 大學

저大學으로 出講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지 않고 研究에 專念하여 보다 充實한 內容의 授業과 훌륭한 책들이 生産될 것이고 또 연구하는 敎授員에서 指導를 받는 學生들은 豊富한 內容의 授業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學園 雰圍氣가 자연히 造成되어 나갈 것으로 믿는 바이다. 市場의 確保없이 出版業의 振興이란 바라기 어려우며 出版金庫에서 資金를 貸與하여 권장한다 하더라도 販賣되는 數가 1千卷 미만인 경우에는 책 값은 자연히 비싸서 一般 國民들이 購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圖書館에서 많은 數의 冊을 살 수 있도록 豫算이 確保된다면 또 製作費를 充當할 수 있다면 一般 國民들에게는 아주 싼 값으로 普及이 可能하며 出版業의 振興으로 民施文化의 창달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問題는 圖書館 擴充과 圖書費 確保인데 이것을 어떠한 方法에 의하여 解決하는 것이 可能한가를 다음에 몇가지를 들어 보기로 한다.

A. 公共圖書館 擴充과 圖書購入費 確保

우리 나라 圖書館法 第7條에 보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 敎育 및 文化의 向上을 爲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로 되어 권장하는데 지나지 않으나 이러한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이다.

外國에는 大部分 義務規程으로 되어 있고 目的稅로서 圖書館稅를 받고 있는 곳도 있다. 法을 改正하여 設置를 義務化하고 消防稅와 같이 目的稅로 하여 圖書館稅를 國民들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다. 市·郡·邑·面에 이르기 까지 公共圖書館의 網이 構成되어 그 地方 住民들에게 精神的 良識을 提供할 수 있는 國家的인 시스템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公共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部落마다 設置된 마을문고 또는 職場文庫를 指導 育成하고 새로운 책을 供給하고 現책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제본수리하여 미설치된 다른 마을로 供給시키므로써 地方 住民들에게 새로운 文獻을 자주 提供하여 農·工業의 技術을 向上시키고 敎養을 높일 수 있는 讀書가 권장 되어야 할 것이다.

B. 學校圖書館 擴充과 圖書費 確保

圖書館法 第25條에 國民學校 이상 敎育機關에는 圖書館(室)을 두도록 義務化되었으나 7,800여개 敎育기관

중 2,300여개 學校에만 圖書館(室)이 設置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大學과 高等學校 500여개 圖書館을 除外하고는 명백 유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行政部에서 關心을 가지고 장학지도와 豫算에 약간씩(國力에 따라) 반영해 나가는 빛이 보인다면 急速히 發展할 餘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關心이 적었기 때문에 學生들로 하여금 圖書費는 받고 있으나 圖書購入 또는 圖書館 運營 以外에 支出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學校에서 많은 學習資料인 책을 自由스럽게 볼 수 있도록 制度를 마련해 준다면 또 讀書指導가 計劃的으로 實施되면 讀書가 生活化 될 것이며 習慣이 몸에 젖어질 것으로 믿으며 이와 같은 立場에서 볼 때 적어도 다음과같이 行政과 財政의인 面에서 考慮되어야 하겠다.

1) 行政의 지원

(a) 學校圖書館 施設基準 制定

文教部에서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을 早速히 制定하고 그 基準에 따라 年次的으로 擴充케 하여 每年 徹底하게 行政部와 專門家들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check되도록 하여야 하고,

(b) 獎學指導의 強化

讀書와 圖書館 運營에 대한 獎學指導를 強化하여 一線 教育者가 義務的으로 讀書를 권장하고 教科課程과 關聯된 圖書를 授業時間에 소개하여 숙제를 내어주므로써 독서권장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c) 學校圖書館 獎學委員 委囑

教育者와 圖書館學者 및 專門家에게 장학위원을 위촉하여 수시로 各 地方에 出場 장학지도를 하므로써 讀書를 통한 自發的 學習態度가 生活化되는지를 研究指導하여 教科 教育만으로 不足된 것을 補充케 하여야 한다.

(d) 圖書의 基準量 確保

學生數에 따른 基準量을 制定하고 年度別로 計劃된 基準圖書確保 여부를 定期的으로 Check하고 選擇된 책인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e) 各種 會議時에 強調

교육감, 學務局長, 管理局長 등 各種 會議 때에 學校圖書館 設置와 圖書確保에 대한 指示를 繼續하여야 한다.

(f) 學校長·校監세미나 開催

韓國圖書館協會는 1968년부터 中等學校長을 위한 學校圖書館세미나를 4개 地域에 開催하여 學校圖書館이 教育에 기여하는 重要性을 認識시킨 바, 많은 成果를 거둔 일이 있다. 이러한 세미나를 專門家를 초빙하여 市·道教育委員會가 實施, 學校長의 關心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圖書費 確保

(a) 現在의 圖書費

圖書費 確保가 가장 重要한 것으로 역시 돈 문제에 귀결이 되나 市·道費에 계상된 圖書費와 學生自律經費에 계상된 圖書費가 있다. 그러나 市道費가운데 圖書費를 增額 配定하고 學生自律經費중 圖書費의 比率를 높여 圖書購入 以外에는 執行을 防止하도록 指導 감독한다면 지금 보다는 많은 책을 購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同窓生, 地方 有志를 통하여 책을 기증받는 方法과 學生들로 하여금 폐품수집, 이삭줍기 등 方法에 의하여 圖書費를 마련하고 있는 學校도 있다. 學校長의 關心 如何에 따라 좋은 成果를 내고 있는 學校와 그렇지 못한 學校가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

(b) 圖書費 增收

學生 1人當 600원 내지 1천원의 圖書費를 받도록 政策的으로 解決이 되어야 根本的인 問題가 풀릴 것으로 믿는다. 600원으로 가정할 경우 學父母가 1년에 300원짜리 책 2권을 사주는 것이 되나 어느 學父母든지 자기 兒童에게 이만한 책을 사주고 있는 것은 보통이다. 그러나 이 2권 사주는 것을 分期別로 조금씩 學校에다 돈을 내서 購入할 경우 2천명의 학생을 가진 學校에는 年 4천여권의 책이 들어오며, 2권의 책값을 내고 4천여권의 책을 자녀들이 共同으로 利用할 수 있으며 學父母들이 個別的으로 2권 내지 3권을 사줄 경우의 그 아동은 1년동안 부모가 사준 책 2권밖에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實施하려면 일부에서는 잠부금 운운하겠으나 年間 2권의 책 밖에 읽지 못하는 兒童에게 4천여권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制度가 된다면 教育的인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느 方法이 타당한가가 理解될 것이며 反對할 學父母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3. 出版事業 振興과 民族文化 暢達

위에서 본 出版事業의 振興을 위한 市場性 確保에 대하여 圖書館의 擴充과 圖書費 確保가 先決問題이나 出版業 自體에 대하여도 몇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A. 稅制面에서 惠澤을 주어야 한다.

出版은 圖書館과 더불어 民族文化의 暢達을 위한 國家의 育成사업이기 때문에 一般 다른 企業과 같이 稅金을 賦課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所得稅와 營業稅가 대부분 면제되고 美國인 경우 他業種에 비하여 그 比率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不況에 놓여있는 實情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적어도 몇년동안 크게 育成시킨 다음에 稅金을 賦課하도록 稅制面에서 特惠를 주어야 한다. 지금은 出版業 自體가 不振하여 企業性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現 稅率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ingsu가 소액에 불과할 것이니 國家財政 確保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B. 도서우송료의 절하

現行 圖書 우송료가 100g당 5원으로 4.6배판 약 300면의 책을 1권 발송할 경우 30원의 송료가 소요되며 책 속에 공문을 넣었을 경우에는 120원이 된다. 이들을 포장하여 우체국까지 운반하는 경우 권당 약 50원의 송료가 소요되며 공문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150원이 소요된다.

先進된 外國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無料로 送達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특별한 惠澤이 주어져 育成에 일익이 되어야 하겠다. 特히 圖書館이나 個人이 廣告를 보고 出版社에 註文할 경우 送料關係가 크게 作用을 하고 또 책값이 비싸져 國民들이 책을 購讀하기 어려운 與件의 一部가 되고 있다.

C. 영세 出版業者에게 금융의 혜택을

文公部에서 出版金庫를 設置하여 資金의 貸與制度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運營의 妙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底利의 長期 대부가 絶실히 요청되고 있다.

D. 出版業者의 整備

우리 나라의 出版業者는 寸莖 만차이며 出版에 대한 經驗이나 知識이 없고 財力도 적은 사람들이 교과서나 풀이하여 한두권 出版하고 자리를 옮기는 無資格 出版社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良書出版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出版業者는 적어도 一定한 水準 以上の 學力과 經驗을 가지고 책에 대한 社會的 倫理性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有資格者가 出版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無資格業者는 整備되어서 Dumping을 방지할 수 있고 良書를 出版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E. 翻譯圖書의 장려

文敎部 또는 文公部에서 外國의 各種 良書를 翻譯하여 出版을 장려하므로써 外國語 이해독자에게 提供하여야 하겠다. 과거에 文敎部의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 날로 變化하는 各國의 文獻的 情報를 時間을 다투어 빨리 入受하여 우리 말로 번역 출판되어야 科學技術은 勿論 敎養에 이르기 까지 손쉽게 國民들이 接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外國文獻 번역센터 같은 것이 設置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4. 一般 서민에게 讀書권장의 強化

A. 公務員과 企業體 從業員에게

行政 各 部處와 立法, 司法, 各 國營企業體, 私企業體 長에게 산하 職員과 從業員으로 하여금 독서를 권하도록 하여 여가의 선용은 勿論 參謀研究의 機會를 주어서 雜念을 除去하고 맑은 바 자기 업무에 充實을 기하고 명랑한 가정과 社會를 건설하으로서 허트러진 기풍을 바로 잡아 건전한 정신적 자세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계기가 정책적으로 이끌어져야 하겠다.

B 언론기관의 협조요청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등 Mass-Media에 중사하는 분들은 國民들이 讀書를 通하여 健全한 生活를 영위할 수 있도록 善導하는 立場에서 年中에 每週 한번은 讀書와 圖書館, 出版關係 기사와 放送을 크게 다루어 國民들이 늘 책을 읽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강조가 必要하며 一大 社會運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독서주간 표어

- ★ 독서로 빛내자 내 가정 내 조국
- ★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회
- ★ 독서는 즐겁게 생활은 알차게